

2013년 항존직 선거 결과 발표

장로 2, 권사 16, 안수집사 15명 피택

2013년 항존직 선거가 10월 6일, 13일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선거 결과 장로 피택자는 없었고 권사 6명, 안수집사 7명이 피택되었으며, 2차 선거 결과 장로 2명, 권사 10명, 안수집사 8명이 추가로 피택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항존직 피택자는 이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2014년 6월 창립기념일에 안수를 받고 임직하게 된다. > 4면 항존직 피택자 명단 참조

2013년 항존직 선거는 2012년 당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선관위는 위원장 박중순 장로, 담당교역자 유기영 목사, 위원 김성구 장로, 지유철 장로, 김유호 장로로 구성되었으며, 남성엽 안수집사와 신형섭 안수집사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시스템 구축과 기타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2013년에 임직한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선거실무위원으로 선거 당일 투표지 교부와 정리 등을 담당했다. 올해 선거에는 이밖에도 몇몇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선거 과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2월부터 선거제도를 개선

2013년 항존직 선거를 위해, 지난 2월, 2013년 항존직선거관리세칙을 마련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았고, 이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 성도들이 선거에 관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에는 12단계성경공부와 거자씨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항존직 피택자격을 가진 성도들을 미리 선정하여, 항존직 추천투표를 할 때, 미리 자격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진을 첨부한 명단을 만들고 추천투표를 실



시했다. 등록기간, 나이, 수세기만 등만 미리 정리하고 추천 투표 후 다시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쳤던 종전의 경우, 추천된 성도가 무자격자로 탈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이 피택자격자 명단도 게시 열람하여, 누락되는 후보자가 없도록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실시

항존직 추천투표 시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자투표를 수기투표와 병행했고, 당회의 공천투표에

서는 전자투표만 시행했다. 전자투표는 주님의교회 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마지막 결과가 나오기 까지 조바심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와 늘 유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결과의 보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때문에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결과적으로 공천투표 전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전자투표를 시행했다.

투표율의 상승, 청년 투표의 증가
교적부에 남아있는 방대한 성도들

의 수 때문에 실질적인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유권자 수를 대략 6,500명으로 보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공개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다. 금년도에는 1차 선거에 1386명이 투표하여 작년보다 96명이 늘었고, 2차 선거에 1063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예년보다 8명이 더 늘어서,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청년의 투표가 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택자는 예년보다 감소하여 장로 2명, 권사 16명, 안수집사 15명이 피택되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피택을 위한 득표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택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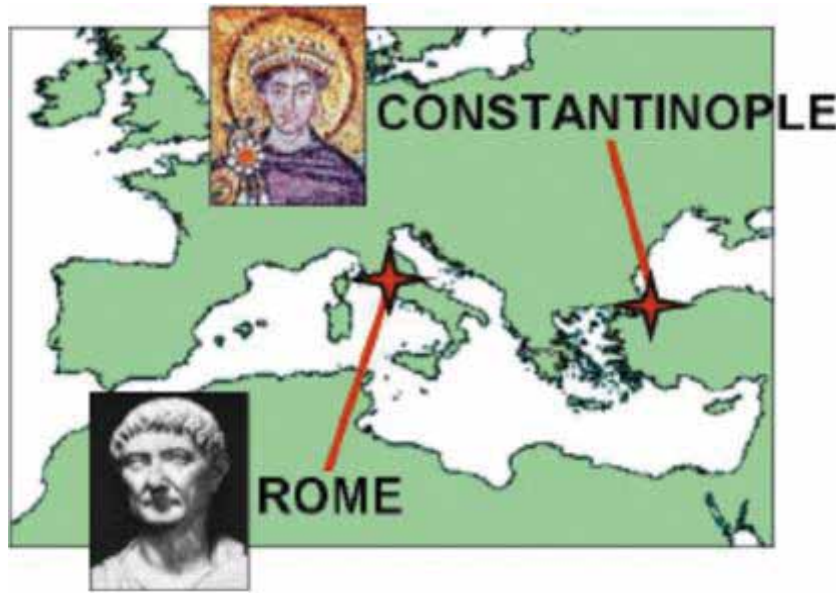
그럼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선거실무위원이 예고 없이 불참하여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고, 피택자 자격자 명단이나 선거인 명단을 미리 게시하여 공개 열람하였으나, 정작 선거 당일 이의를 제기하여 곤혹스러운 경우도 없지 않았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제공된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경우 부득이 무효처리를 하거나 선관위원들의 유권해석을 통해 그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로 반영하는 방식을 택해서 최대한 사표를 줄이려 했다. 이 모든 경우가 주님의교회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함글함글

📖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2

1054년 동서 교회 대분열의 역사적 배경

2천년이라는 오랜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교회는 몇 차례 큰 분열의 아픔을 겪으며 성장하여 왔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마16:16)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고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차와 이 고백을 표현하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교회의 역사는 처음부터 분열의 상처를 키워가게 되었다. 이단시비와 파문의 극단적인 대립은 초대 교회에 비일비재했던 기독교 역사의 현실이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두 번에 걸친 큰 분열의 아픔을 맛보았다. 사도적 전통(Apostolic Tradition)을 이어받았던 초대교회는 본디 한 개의 보편교회(Universal Church)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물론 로마제국의 정치적 보호 아래 동서방 교회가 지중해 연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연합공의회(Ecumenical Councils)를 통하여 보편교회로서의 신학적 통일성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054년의 ‘동서교회의 대분열(Great Schism)’을 통하여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가 독립되었고, 1517년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가톨릭(Catholic)교회’와 ‘개신(Protestant)교회’가 분열되었다. 물론 이 세 가지 큰 그룹들 산하에 수많은 교단과 수도회 등이 분열을 통하여 성장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기서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대분열로 간주되는 동방 정교회와 서방교회의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대분열(1054년)의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자.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은 초대교회가 한 개의 보편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동서교회의 분열 조짐은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에서 사용되는 공용어가 각기 달랐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가 라틴어를 사용할 동안 동방교회에서는 헬라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동방교회의 일원이었던 시리아 교회(Syriac Church)나 이집트 콥트교회(Egyptian Coptic Church)는 자기들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신학의 차이와 곧바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면, 동방교회의 신학을 대표하던 알렉산드리아 지역 신학자들이 주로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비

교, 유추하는 방법으로 해석했고, 또한 안디옥교회는 본문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한 성경해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언어해석의 차이는 동서교회의 말씀 이해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동서교회의 신학적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둘러싼 해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vere Deus)’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vere Homo)’이라는 칼케돈 공의회(Chalcedonian Council, 451년)의 결정은 서방교회의 신학을 반영한 것이었다. 서방교회 신학을 통해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격과 인격의 합일은 동방교회의 신학자들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의 ‘본성(Nature)’을 가진 것처럼 이해되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인정하는 서

방교회의 모순적인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한 개의 신성(神性)’을 강조하는 신학이 발전하였는데, 이 동방교회의 신학적 노선을 ‘모노피사이트(Monophysites)’라고 한다.

동방교회 모노사이트 전통에 따르면 예수는 절대적 신성이라는 ‘한 개(Mono)의 본성(Physite)’을 가지고 있으며, 서방교회의 ‘두 개의 본성’ 이론은 예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견해로 이해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동방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절대적 강조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의미 첨가로 발전되었다.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 Mother of God)’이다. 마리아에 대한 동방교회의 신학적 의미 부여는 서방교회와의 신학적인 의견 차이를 계속 심화시켰다. 또한 8~9세기 동안 진행된 성화 숭배 전통(Iconoclasm)을 둘러싼 신학논쟁이 동서교회를 다시 분열시킨다(726~843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신학적인 견해차를 현격히 드러내면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모노피사이트 논쟁과 성물 숭배 전통과 연관된 동서교회의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동서교회의 대분열(The Great Schism)’로 불리는 1054년의 사건은 이런 장구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이강찬 목사

📖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0

列王記(열왕기 Books of Kings)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 상 8:20-22)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다윗왕의 죽음에서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역사서이다.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 통일되고 이웃나라를 평정하여 번영하였으나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하였다. 멸망하여 바빌론에 포로가 된 이 유는 유일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선지자박해와 연약에 불충실했기 때문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列(벌릴 렬): 살이 빠지고 뼈와가 죽만 남은 모습의 𠂔(양상한 뼈 알. 죽을 사 변)과 𠂔(칼 도)의 변형체 𠂔(선 칼 도 방)가 결합되어 <생선이나 고기의 양상한 뼈를 칼로 잘라 벌린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렬”이 두음법칙 때문에 “열”로 읽힌다.
★王(임금 왕): “하늘. 땅. 하늘과 땅 사이”를 뜻하는 二(두 이)와 “엮다. 연결하다”의 뜻이 있는 𠂔(위

아래로 통할 곤. 뚫을 곤)과 “모으다”를 의미하는 一(한 일)이 합쳐 <하늘의 뜻에 따라 땅의 인간들을 모으고 엮어 다스리는 지배자가 임금이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記(기록할 기): “말하다.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言(말씀 언)에 “나. 자기”를 뜻하는 己(몸 기)를 합쳐 <말의 분명한 의미를 남기기 위하여 내가 글로써 기록한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함줄함줄

☞ 교계소식

작은 교회들의 아름다운 박람회 _작아져야 보이는 낮은 곳

25년전 주님의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 50여 명의 성도가 첫 예배를 올렸고, 결코 크고자 하는 욕심이 먼저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른 교회를 향한 마음이 모여 이제는 큰 교회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도 많은 곳에 큰 꿈을 꾸는 작은 교회들이 있다. 그중 50여 교회가 모여 박람회를 연다. 10월 19일, 서대문구 냉천동에서 열리는 ‘2013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작은교회 박람회’이다.

“

낮은 곳을 찾아
작은 불빛들을 밝히는
‘작은 방주들’의
소중하고 소박한
박람회가 열린다

한국에 있다고 한다. 건물이 높으면 그들이 깊은 법, 이런 대형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주님의 뜻은 간데 없이 돈과 권력과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낮은 곳을 찾아 작은 불빛들을 밝히는 작은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명과 평화에 대한 꿈을 나눈다. 지난 24일 열렸던 작은교회론 심포지움에 이어서 열리는 작은교회들의 잔치이다.

생명평화에 대한 꿈을 나누다

크고 힘세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만이 ‘선’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작고 약하고 뭉툭한 그들의 교회는 오히려 소박하다. 대부분 수십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고, 수백 명에 이르는 중형

교회들도 분립과 사역을 통해 더 낮아지려는 교회들이 모인다. 이 교회들이 각각 부스를 나눠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나와 사진과 영상, 책과 말씀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관람객과 소통한다.

작은 교회의 여러 모습들

이곳에 모이는 작은 교회들은 또한 독특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경기도 부천시 새롬교회는 ‘교회중심이 아니라 마을중심, 성장중심이 아니라 봉사 중심’을 지향하면서 공부방 운동을 펼쳤고, 이웃 동네의 예인교회는 만인제사장의 뜻에 따라 운영은 민주적으로 하되,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이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 건국대 앞에는 ‘어떤 장소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교회론에 따라 카페를 겸한 예배당인 시냇가에심은교회도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작은 교회에서 쉽지 않은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을 위한 리더십 등을 서로 나누고 협력의 기회를 찾는 대화마당도 펼쳐질 예정이다.

함글함글

작고 약하고 소박한 교회들

한국 개신교 교회의 놀라운 성장 속도는 세계 종교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개교회의 성장은 놀라워서, 전 세계 대형 교회의 절반 가까운 23개 교회가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기도 용어 편 4

하나님의 축복(X): 하나님이 주신 복(O),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X): 하나님, 복 주소서(O)

기도 중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소서.”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복을 비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비는[祝福]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降福] 분임을 잘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는 “하나님, 복 주소서.” 또는 “복 내려(베풀어) 주소서.”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X): 예배를 인도하시고(O)

기도 인도자가 기도의 마무리를 하면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의탁’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는 의미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거의 ‘그가 대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응답의 행위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이 예배를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방관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필요할 때엔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로 쓸 수 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읽는 것(X): 적절하지 않음

성경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그 분께 다시 들려드린다는 일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이들 가운데 마치 사람을 훈계하듯 설교처럼 기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이므로 옳지 않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치셨다(마 6: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나를 일으킨 한 마디 3

“하나님이 한쪽 창문을 닫으실 땐, 다른 쪽 창문을 열어 두신다.”

오래전 IMF의 여파로 다니던 대기업에서 젊은 나이에 명예퇴직을 해야 했다. 규칙적인 월급을 받고 살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맞닥뜨린 현실은 정말 암울했다. 고민하다가 평소 취미활동으로 즐기던 것이 떠올라 한 평짜리 작은 가게를 차렸다. 경기가 풀리면서 사업이 잘 풀렸고,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익명의 집사

> “나를 일으킨 한 마디”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누군가의 말, 구절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익명도 가능합니다.

메일주소 : hamletter@hanmail.net

2013년 피택 항존직을 소개합니다

2013년 10월 6일의 1차 항존직 선거와, 13일의 2차 항존직 선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한다. 이 선거를 통해 장로 2명, 권사 16명, 안수집사 15명이 피택되었다. 이후 여러 교육과정과 기도를 통해 단련되고, 2014년 6월 창립기념 주일에 임직되어 앞으로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 현장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가나다 순)

■ 장로



배익환



최성준

■ 권사



강정임



권주리



김기남



김명자



김영례



김영미



김영조



김인숙



김중희



김춘자



나경희



박정은



이금순



이민자



정옥영



조균실

■ 안수집사



김동관



김용규



김익환



도재성



민병준



박인용



신성철



이송도



이제원



전종철



정원락



최우철



탁동원



현상철



홍완식

로렘나무

주의해야 할 이국의 풍습, 할로윈 데이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는 할로윈 가면이나 의상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10월 마지막 날인 ‘할로윈 데이(Halloween Day)’는 북미와 유럽의 축제로, 새해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 죽은 혼령들을 공양하던 고대 켈트족의 주술적 신앙과 죽은 성인들을 기리고 숭배하던 로마교회의 전통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이교도적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서양 명절이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적 풍토와 함께 어느 틈엔가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이국적이고 신나는 축제로 인식되고 있다.

북미의 경우 이 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이 괴기스러운 의상을 입고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이웃집 현관 앞에서 ‘트릭 오어 트릿(trick-or-treat)’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귀신인 나를 대접하지 않고 꿀탕을 먹겠느냐 아니면 잘 대접하겠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다. 방문을 받은 집에서는 귀신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캔디를 준다. 마녀, 해골, 귀신 등 죽음이나 주술적 상징의 의상을 입는 것도 상대를 겁주고 위협하려는 의도인데, 요즘은 갖가



할로윈 데이의 호박등을 ‘잭오랜턴’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의 민담에서 유래한 풍습이다

지 캐릭터 의상을 입어 마치 즐거운 놀이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얼굴 모양을 파낸 커다란 주황색 호박인

‘잭오랜턴(Jack O’Lantern)’도 할로윈의 상징물인데 이 또한 귀신을 쫓아내려는 주술적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동지 팔죽이나 복조리와 비슷한 것으로 귀신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영어교육 열기와 빈번해진 외국생활과 함께 이런 서양문화가 여과 없이 유입되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열고 아이들이 색다른 옷

을 입고 분장한 모습을 마냥 귀여워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놀거리로 착각한다. 놀이동산이나 상업시설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즐기는 특별한 축제인양 포장하고 마치 세계적 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눈속임하여 손님을 모으고 있다. 기성세대에게 다소 낯설지만 세상문화에 쉬이 마음이 가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일수록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휩쓸리는 것이다. 얼마나 신나고 달콤하고 특별한 하루인가?

미국 크리스천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할로윈 파티에 아

이를 참여시키지 않고 일찍 귀가시키거나 아예 결석을 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가정들은 자녀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심 갖는 것에 대해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멋진 분장을 하고 즐기는 게 좀 어때’, ‘모두 참여하는데 나만, 내 아이만 빠질 수 있나?’ 혹,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전통 속에 미신적인 많은 풍습과 절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외국의 귀신놀이까지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제껏 할로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화려하고 멋진 허울을 던져야 하겠다, 이것은 결코 문화가 아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귀신과 악령을 우리 마음과 생활에 친숙하게 만들어 은연중에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교묘한 역사임을 알아야 하겠다. 하나님은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적당히 타협해 살아가라 하지 않으신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거창한 상황이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다. **김주현 집사**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읍기 편

이번 호에는 십자말 구성이 쉽지 않아 빈칸 넣기로 바꾸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함줄함줄**

1.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도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시요 거두신 이도 ○○○시오니 ○○○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1:21)
2. 그가 ○○○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9:11)
3.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듯 하나 이다 ○○○○○ (욥11:11)
4. 지혜와 권능이 ○○○ 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욥12:13-14)
5. 청하건데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에 두라 (욥22:22)

6.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하신 후에는 ○○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기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을 귀히 여겼도다 (욥23:8-12)
7.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을 떠남이 명철이라 (욥28:28)
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라고 지혜롭거나 ○○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욥32:8-9)
9. 나는 결코 ○○의 낮을 보지 아니하며 ○○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욥32:21)

부르심의 길에 서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제게 어릴 적부터 품게 하신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중3 때는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공부도 약한 몇몇의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잘 대해 준 적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다른 친구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오해만 사며 크게 실망했지만, 그 뒤에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된 후 제 첫 봉사지도 소외된 자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랑의교회는 강남역 주변의 유흥업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비전으로 우물가 선교회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드라마를 통해 전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단속에 걸린 미성년자들이 재활 받는 서울 시립기술원에서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일은 아직까지도 참 특별한 기억입니다.

폴란드와 영국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일한 곳도 정신병원과 연계된 기독교 공동체로, 마음이 아파 사회와 일반교회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치유를 사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라마 학교와 드라마 클리닉 사역을 시작하며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치유를 받아도 계속해서 잘 관리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 아

픔이 떠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았고, 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7년에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써 이러한 사역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마음을 주시고, 2008년에는 사무엘하 5장 2절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염려하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과 시련은 모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다 이해가 쉽게 스토리텔링의 형태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것이 현대로 말하자면 드라마가 되지 않겠는가?” 라며 영국 유학 중에 편지로 격려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예배드라마와 그를 통한 치유 방법을 제게 속제로 주시며 실험, 연구하도록 하십니다. 귀한 사명 감사하며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게로 가는 길을 밝히는 순전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규호** 전도사

교회 단신

권사회,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방문



주님의교회 권사회 90여 명은 10월 16일,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 다녀왔다. 초창기 조선에 기독교를 선교하러 왔다 순교한 선교사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해 순교한 순교자들, 625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공산군에게 살해당한 순교자들, 이단을 연구하다 괴한에게 피살된 순교자들, 아프리카나 스탄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다 순교한 젊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며 멀고 험난한 선교와 순교에 대해 되새겨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함줄함줄

‘비유’은 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본래 야생동물을 길들이거나, 흥분한 짐승을 진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파생하여 사람이 분노하여 난폭해지거나 잔인해지지 않고, 친절하고 상냥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유한 자는 자신의 본능과 충동, 격동 등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온유’가 흔히 오해받는 것처럼, 경계 없이 온순하고 우유부단한 부드러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한 시기에 결단을 할 줄도 알아야 하고, 불의한 때에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 모두에 대하여,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유한 것’을 뜻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양상을 띠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 힘이 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불평이나 거역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을 대할 때, 진정으로 분별력 있는 온유한 자가 될 터, 이것이 주님께서 복되다고 선언하신 가장 깊은 온유의 개념입니다.

💡 교회사역일정

- 10. 20. (주일) 추수감사주일
- 10. 21. (월) 제179회 평양 노회
- 11. 1. (금) 겨자씨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
- 11. 7. (목) 수능일 학부모기도회

▶ 지난 호 교회사역일정 중 “10. 11(금)~12(토) 정책당회”는 “11. 22(금)~23(토) 정책당회”로 바로잡습니다.

함줄함줄